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3月16日(金) 10時0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2. 都市計劃 用度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3.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都市計劃 用度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5面
3.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2面

(10時01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린다는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을 지원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2년 만에 폭설이 내렸듯이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린 이후에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가 가장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가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예방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에 일어난 서울 홍제동과 세곡동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일 없겠지 귀찮은데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그동안 많은 재앙을

부르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어 행정불신을 초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사설담장이나 축대 등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만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해빙기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선배 동료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2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취회의

건이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05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님! 安載弘 幹事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의 개정을 권장해온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편의적인 사항으로서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구체적이며 순화된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내용상의 변경은 없이 조례문구 중 행정편의 위주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 자구를 열기 사항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구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되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는 규정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기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문구를 그 아래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대상 조례의 전체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수입증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하여 '94년도, '99년도 등 3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고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첨부대상 민원은 조례에 의한 수수료와 호적 및 주민등록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고 '94년도부터는 수입증지와 병행해서 인증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짜리부터 해서 1만원짜리까지 총 17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을 해서 14종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와 인증기 취급 공무원 지정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일일 판매상황보고와 결산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전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참고 자료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11억 3,500만원, '99년도에는 12억 6,700만원, 작년도에는 13억 9,300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사용내역을 보면 1만원짜리가 2000년 경우에 2억 80만원, 5,000원짜리가 5억 7,700만원, 1,000원짜리가 5,400만원, 500원짜리가 4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말고 장수별로 따지면 1,000원짜리가 5만 4,000장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만원짜리가 2만 80장, 5,000원짜리가 1만 1,000장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수입증지의 인쇄 및 보관은 인쇄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와 검수는 재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일단 검수된 수입증지는 보관은 상업은행 구금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정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판매인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라는 수익이 나지 않는 관계로 포기를 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부터 도입한 인증기 보유현황입니다. 총 32대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봉사실에 7대, 지적과에 2대, 교통행정과, 여권과, 보건소 각 1대, 동사무소에 20대가 있습니다. 세종로동에 1대가 있어서 20개 동이 됐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을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수입증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방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吳錦南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증지의 종류가 14종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호적등본을 1통 발급하는 데 현재 수수료가 500원 정도였는데 수수료 조항이 바뀌어져서 505원으로 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00원이 505원으로 그러면 수입증지는 5원짜리 수입증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500원짜리 수입증지와 5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현금을 받는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수수료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입증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변경돼도 현금에 의해 가지고 받았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吳錦南委員** 만에 하나 그런 예가 있을 수 있 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에 인증기를 32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기는 하나 하나 찍을 때마다 넘버가 나오니까? 일렬로.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일렬로 나와서 일일 계산, 월 계산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방금 吳錦南委員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 제안설명에서 종전의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받았습니까? 내용에 보면 수입증지 납부가 불가능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규정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 전에 종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 안 받았습니니다.

○**丁炳煥委員**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수입증지에 의해서 받았습니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종전대로 개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규정이라는 애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수수료나 사용료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입증지에 의해 가지고 납부가 안될 때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吳錦南委員**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5원에 해당하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종류의 수수료가 어느 날 생겼을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인지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총 보유대수가 32대인데 동사무소가 20대인데 세종로를 사직동으로 합쳐서 사직동에서 지금 인지를 2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직동에는 우리 재무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직동에는 인지가 꼭 굳이 2대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청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다 이것

을 갖다놓을 수는 없는지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세종로동사무소가 있었던 그 건물에 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도 일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직동

○**丁炳煥委員** 문화센터에서도 꼭 수입증지를 붙일 만한 민원이 발생하는가요?

○**財務局長 董連浩**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憲九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토론은 아니고 자구수정인데 아까 **蔣課長**이 검토보고 과정에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상업은행 금고라고 했는데 한빛은행으로 정정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會議中止)

(10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都市計劃用道地域·地區 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 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자연경관지구 중 일부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안 및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안)을 2001년 1월 29일부터 2001년 2월 12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자연경관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98필지에 면적은 299만 650㎡입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평창지구가 3,678필지에 면적은 203만 7,507㎡이고 인왕지구가 1,864필지에 면적은 75만 1,925㎡, 성북지구가 156필지에 면적은 20만 1,218㎡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 경관지구는 구 면적 20.01km²의 18.3%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팔판동 115-1번지 일대 1만 1,490.6㎡, 삼청동 20번지 일대 4,046.5㎡, 삼청동 27-3번지 일대 6,159.0㎡, 혜화동 5-50번지 일대 5,930.1㎡로 총 4개 지역 면적은 2만 7,626.2㎡입니다. 서울시 경관지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위 지역의 해제기준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고가도로 등에 의해 절단되어 소규모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풍치지구로 관리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시계획사항과 어울리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지

역 또는 학교 등의 대규모 시설에 연접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연풍치유지 및 자체 풍치유지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평창동 154-1번지 일대 7,603㎡, 평창동 148-21번지 1,303㎡, 평창동 296-2번지 일대 9,431㎡, 신영동 5-1번지 2,998㎡, 신영동 10-1번지 일대 4,576.0㎡, 신영동 72-1번지 일대 5,022㎡, 신영동 130-1번지 일대 4,865㎡, 홍지동 93-2번지 일대 1만 3,208㎡, 구기동 54-3번지 일대 1만 1,686㎡, 청운동 12번지 일대 1,171.3㎡, 청운동 52-58번지 일대 2,050.9㎡, 삼청동 157-83번지 일대 4,473.9㎡로 총 12개 지역 면적은 6만 8,388.1㎡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위 지역의 건축규제완화기준을 말씀드리면 인접지역과 높이차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또는 너비 25m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람공고시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우리 구(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저희 구청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신사년 한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都市計劃用度地域·地區 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朴鍾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우선 해당위원님들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다 안 계시고 지금 평창동지구 같으면 평소 때도 자연을 많이 훼손하면서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의아심을 가진 우리 종로구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그렇게 완화를 해서 자연보전에 저해요인이 더 발생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朴鍾植委員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전반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됐거나 또는 재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비록 요구안이 도시계획변경(안)이 합리적이다,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서도 시에서 해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풍치지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만km²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각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해제하는 데 따른 연쇄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지 합리적인 요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

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려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풍치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두세 달 동안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한 풍치지구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이러한 지역이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다라고 해서 지침을 쪽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불량주택지역이 밀집된 이러한 지역 소규모 필지로서 불량주택이 밀집된 이러한 지역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축과 단절된 이러한 지역들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일단 지침은 주어져있고, 또 큰 도로변에 연결해 있어서 사실상 주택들이 다 들어서서 다른 기존의 녹지나 공원 경관지구로서의 보존가치가 풍치지구로서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지역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침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의 풍치지구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만 골랐습니다. 매일 현장을 답사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볼 때 해제 또는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삼청동 2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금융연수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쪽입니다. 바로 다음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한 곳은 교육행정연수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었고 아주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녹지축과도 이미 단절이 도로상과도 되어 있고 상당히 떨어져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해제가 되더라도 별 애로사항이 없다,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고도제한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6m 이상 건축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경관을 저해할 위험성은 적고 다만 건폐율이 30%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층을 짓더라도 삼사십평 되는 땅에다가 30% 지어봤자 10평으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폐율만 60%로 올려주는 겁니다. 해제하게 되면 주민들이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최소한의 건축을 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완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지금 풍치지구 같은 경우에 원칙이 건축기준이 건폐율 30%에 3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90%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 관내의 대지면적이 200㎡면 66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지면적만 66평 정도가 안되는 그러한 대지가 약 46%입니다. 저희 풍치지구 전체 대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66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평을 30% 건폐율을 잡으면 20평이 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0평짜리도 많습니다. 대지가 30평, 40평짜리도 많은데 거기에 30%면 12평 바닥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집을 못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규제완화를 하면서 또 너무 무리하게 건폐율을 50%, 60% 가져가게 되면 아예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30%에서 조금 더 10% 올리더라도 올리고 층수는 3층으로 그대로 두고 일부 대로변에 연결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층수를 올려서 4층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반적인 저희들이 조망축이나 경관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러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대개 인근의 주택들로 인해서 다 공원이나 녹지축과 이미 단절된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이것은 이 안전하고는 좀 관계가 먼 얘깁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건폐율이 많이 나오고 소방도로를 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익인데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제도가 참 좋지 않

습니다. 너무 건폐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고 또 외국사람들처럼 합의정신이 있어 가지고 15평짜리 5, 6개를 합쳐서 쓸모있는 집을 지어나가면 괜찮은데 15평에 8평 허가를 내가지고 4층씩 올려놓으니 결국은 한 20년 있으면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제도가 좋지 않은데 각 부서에서 시한을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되도록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조그마한 집들을 개별적으로 짓지 않고 한 3, 4, 5개 합쳐서 좀 모양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연건동은 딱 하나 있어요. 합병해서 지은 집이. 그래도 동승동은 아파트라서 16채를 합쳐 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데가 있는데 15평에 8평 허가를 내서 4층씩 올려놨어요. 그런 점들을 좀 앞으로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04년까지 한시적인 법안이고 사실상 신규로 추가로 지정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쪽 해오던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2004년까지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연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나름대로 기이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작은 필지에 과밀하게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20년 정도 되게 되면 정말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과밀하게 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3, 4필지 합필을 해서 조금 주거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변의 교통흐름 같은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朴鍾植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長! 질의해주시시오.

○吳錦南委員 위원장님! 먼저 슬라이드도 와있으니까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라든지 풍치지구라든지 오늘 여기에 의견청취 올라온 것을 슬라이드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풍치지구나 자연경관지구 내를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은 전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사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같이 조사를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委員長 金福同 그렇게 하시죠. 설명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총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제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팔판동 115번지, 삼청동 20번지, 삼청동 27-3, 혜화동 5번지 이 4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지역은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제지역으로 올린 지역이 팔판동 115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에 청와대 춘추관이 여기 있습니다. 삼청동길이 있고 25m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묶여 가지고 약 사오십년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번에 1만 1,490㎡를 해제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60으로, 용적률 150으로 상향시키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지 일대는 금융연수원이 있고 감사원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동 감사원길 25m 도로변에 위치한 이 지역도 주거환

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지역도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삼청동 20번지 일대도 현재 공무원종합연수원 바로 이쪽인데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지역도 해제를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혜화동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경신중고등학교 위치가 이 위에 있고 원래 문화재보호구역은 파랗게 칠한 이 부지가 됩니다마는 규정상 문화재보호구역에서 300m 권내에서는 사실은 풍치지구 해제를 안 시켜줍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성북동지역이 잘 살고 있고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좋아졌는데 경신중고등학교와 단락을 지어서 이 지역만 그렇게 아주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치지구 해제지역은 4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로 규제완화로 작년도 7월 15일날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해제는 풍치지구관리규칙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조례상에 뒷부분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층씩 고도를 올리고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은 건폐율까지 40% 완화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평창동 154번지 1호 이 지역은 지금 평창동 전용주거지역이 이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과 약 15m이상 단차가 집니다. 그래서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층을 올리더라도 조망축이 차단되지 않는다 해서 한 층씩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 지역이 되었고 그 옆에 148-21호 그 부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뒷부분과 조망축 차이가 없다 해서 이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인접지역의 3번 지역도 296-2번지도 이 뒤가 대우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옹벽으로 이렇게 단차를 경계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폭 낮아있습니다.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영동 5-1번지 여기도 뒷 부위들과 지형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층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 5번은 '98년도에 이 지역을 규제완화하면서 건폐율 40과 4층으로 이미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것을 남겨놓

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해 가지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여기는 대로변에 접하기 때문에 건폐율 40% 높이 4층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지역은 노후된 연립주택이 3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굉장히 뒷부분과 단차가 20m이상 차이가 나면서 개발하고자 해도 풍치지구로 묶여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건폐율 40%와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주위와 조화를 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7번 지역인데 130-1호 지역은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으면서 삼각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빌라가 좋은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위에 있는 땅들을 개발을 못하고 거의 노후된 주택들만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건폐율과 높이를 한 층씩 올려주자 이러한 판단을 했고요, 여기도 홍제동 93-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뒷부분과 낙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도 규제완화를 하고 대로변이니까 가능한 한 건폐율도 완화하는 그런 지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6번 지역은 구기동 54-3번지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뒷부분이 거의 공동주택으로 빌라 형태로 아주 좋게 지어져있습니다. 하필 이 부분만 주거지역이 노후되어 있고 여기도 인접지역과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높이만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4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청운동 12번지는 터널 지나서 이리 올라가보면 도로변에 접하면서 굉장히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지어도 이 지역 주변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겠다 해서 여기도 규제완화로 해서 올렸고 다음 여기는 청운동 52번지인데 여기가 청운재개발지역이고 뒤편의 주택들이 참 좋습니다. 원래 정주영 회장 집이 여기 있었는데 도로는 8m로 쪽 가다보면 이 부분과 용벽이 한 15m 용벽이 있으면서 뒷부분과 이 지역이 폭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을 한층 더 4층으로 지어도 주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

단을 하고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제지역 팔판동 115번지 바로 인접지역인데 여기는 이미 청와대에서 춘추관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총리공판이고 그래서 이 자체도 집들이 3층으로만 지어져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다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나하나 주위 여건과 판단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고 지금 이 사항을 보면 해제지역이 4군데, 규제완화가 12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안이 돼서 저희들 전문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공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갖는 부담이 크고 해서 종로는 어쨌든 이 지역을 기폭제로 해서 아까 자료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면적의 약 18%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지역을 먼저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와 접근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또 다음에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도 서울시 입장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의원님과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해서 서울시에 가능한 한 많이 해제가 되고 규제완화가 돼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위원님들! 납득이 가십니까?

○吳鎭南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관계자,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이렇게 구민의 어려운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재산권을 보호해주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앞으로 좀 더 빠진 데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조망축

을 차단하지 않고 또 도로넓이가 25m 되는 인근 지역의 저지대, 쉽게 말하자면 구릉지같이 낮은 지대는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같이는 못 다니더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직원들이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으리라고 봅니다. 꼭 서울시 에 가서도 실천이 되도록 가능한 한 설명을 상세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우선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 용도 지구변경 결정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河徹昇** 局長과 **鄭鎮皓** 課長, 이종남 주임, 그 다음에 조현태 씨 그 다음에 김재열 씨 그 밖의 도시계획과 모든 직원들께 정말 최고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풍치지구와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30년 이상 짧게는 20년 이상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엄청나게 규제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그야말로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적어도 30년 동안 불법적으로 규제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부분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河** 局長이나 **鄭** 課長께서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지침 범위 내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종로구 도시계획과의 모든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자료는 정말 서울시에서 지금 불가 의견을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기본적인 자료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물

론 아까도 같은 얘깁니다마는 **鄭** 課長께서도 이번에 누락된 지역은 차츰 보완해서 하겠지만 그야말로 의회나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우리 집행부가 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까 **河** 局長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시고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계획과의 모든 직원들께 정말 앞으로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애쓰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과 실제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서울시에서 공람공고 기간 중에 불가, 거부적인 반응이 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이나 의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관철 대안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安載弘**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鄭鎮皓** 課長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시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풍치지구를 살살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볼 때 추가로 해야 할 지역이나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安載弘** 委員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풍치지구 자연경관 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나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미리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생

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도시계획, 물론 서울시도 서울시입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문가고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분들은 우선 자연경관 지구에 대해서 해제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견청취하는 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 찾아뵙고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그분들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실무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책임자들과 더불어 충분히 며칠 몇날이 걸리더라도 설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지면이 있는 위원님들이나 지면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 안을 가지고 들고 가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설명보다도 때로는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설득, 설명이 훨씬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보여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우리 河局長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이든 어떤 업무의 추진이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 뭐라고 그럴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관

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찾아서 지금 적어도 20년 또는 30년동안 부당하게 규제된 막대한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물론 대국적이나 큰 면에서 볼 때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구에서 입안된 경관지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하여간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정말 최고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종로구에서 서울시와 맞닥뜨려 추구하는 최초의 도시계획 변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이 안을 내고 거기에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담당국장께서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무튼 이것은 반드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부서도 원안대로 통과돼서 반드시 30년동안 부당하게 규제된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가 이번에는 꼭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이든 어떤 사소한 권리든 작은 권리가 부당하게 규제받는다면 담당국장께서는 스스로 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말이 많다고 하겠지만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河徹昇局長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삼청동이나 승인

동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꼭 보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사업 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녕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2000년 도시계획사업으로 기 시행 중에 있던 승인동 411-431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 중 승인동 408~362-2간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현재 10m에서 8m로 일부 변경코자 검토하였으나 2000년 제7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선형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후 연계하여 재검토하도록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은 도시계획상 10m도로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8m 이상 도로폭이 확보되어서 현 상태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간은 약 80m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현황 7m이상 도로로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2002년 4월경에 도로공사 착공 예정에 있으므로 본 사업을 보류하고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본 사업구간과 인접 도로인 승인동 411~324간 현황도로가 약 3m 정도 됩니다. 이 도로는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이 성북 보문동을 우회함으로써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보류결정으로 기 책정된 사업예산 약 4억원을 우선 승인동 411~324구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전용코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사업 보류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建設局長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짝막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재 되어 있는 데 말입니까? 변경할 때

○吳錦南委員 변경할 곳 411-324번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변경할 지역은 '6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그 지역을 제가 자주 다니던 지역입니다. 신설동로터리에서 고대 쪽 내려가다 보면 고대 쪽으로 해서 성북구청으로 가면 삼거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길 나는 옆이 주유소죠? 그런데 이 도로상으로 보면 종로 쪽에서 나가면서 신설동에서 들어와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다시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빨간 도면상에 보면 빨간선 현재 예산을 잡았던 그 자리와 새로 예산을 넣겠다는 데 파란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대체적으로 보면 왕산로라고 쓰여져 있는 데서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서 거의 차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도로를 내게 되면. 그렇다면 신설동 지나서 고대로 가는 삼거리에서 천상 우회전을 해서 차가 돌아나와야 되거든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칼날처럼 이렇게 도로상이 되는데 과연 이 도로가 6m도로로 내 가지고 차량소통이 원만하겠느냐, 차량이 엄청 다닙니다. 성북구청에서 그리로 해서 신설동로터리로 오는 차량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자주 그 지역을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차량이 많은데 물론 이 도로를 내면 좋겠습니까마는 도로를 낼 경우에 차량의 충분한 소통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유소에 있

는 끝마무리를 조금 더 확보해서 우회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봅니다. 과연 이 도로를 내가지고 현재처럼 일직선으로 잘라만 놓으면 우회전하는 데 상당한 불편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서리를 커트해서 보상을 하고라도 차가 원만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보도부분하고 겹치는 도로구간이니까 라운드를

○吳錦南委員 보도 쪽을 타원형을 만들고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잘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른 이상은 없겠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예.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 幹事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송인동 411-324간 6m 도로폭에 110m 길이로 현재 폭은 3m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쪽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간적이 있습니다. 현재 10m로 되어 있고 180m로 되어 있는 이 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느끼는 것이 어차피 도로폭이 넓어지지 않고 확보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바로 이웃인데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선배위원이신 朴鍾植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화동이나 송인동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현실적으로는 도로폭과 관련해서 볼 때 상당히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m 도로가 됐든 3m 도로가 됐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왜냐하면 주도로에서 새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주거밀집 그러니까 인구밀집이나 또는 기타 세대의 밀집도로 봐서는 도로 확보 없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홍제동에서도 소방관 6명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입

니다마는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인근 도로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차후 발생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6m 도로 폭에 110m가 이 4억의 예산을 가지면 종료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이 도로도 역시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니까 기왕이면 6m 폭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봐가지고 8m나 10m폭을 확보하는 것이 인근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차라리 6m로 해서 110m 확보하지 말고 기왕에 도로를 개설하던 부분들을 좀더 폭을 확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載弘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기 사업이 책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상은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인데 일반지역은 현재 8m가 확보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10m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도로는 현재 8m 이상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왕복으로 다니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번째 말씀하신 다시 사업하는 지역 현재 6m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8m로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선을 추가로 8m로 확장이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이 앞으로 반대여론이나 또 반대하는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확장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도시계획과와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 아까도 朴鍾植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본 결과 앞으로 불과 5년 이내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설교통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계되는 세부 도로

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금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여기 8m 폭까지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8m 폭이 제 기능을 다하느냐, 아닙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놓은 경우에 실제로 자동차들이 두 방향으로 스위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간이 넓은 데서 자동차가 대기하다가 한 대가 빠져나가면 또다시 한 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도로를 얼마든지 늘린다고 해도 자동차를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는 사실 도로확장의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세부도로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계되는 도로폭이 워낙 좁다고 판단돼서 이것 어떤 대안이 없이 주거환경개선지기도 어차피 종로구 일이고 도로를 확보해서 늘리는 일도 종로구 일인데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 하에 변경이나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즉시적이고 대중적인 요법이 아니라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과 5년 이내에 여기는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과면 주택과,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재 기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 도면에 빨강색 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빨간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사업구간입니다. 이 사업구간 중에 빨간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기 주택과에서 보상이 추진돼서 2002년까지 10m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상에 10m이나 8m정도 확보돼서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10m 확보돼도 통행에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각각지점에 대해서는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의 각각 부분은 좀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 이쪽 지역의 사업비로 책정된 5억 9000 중에 4억 6,000 정도를 각각 부분에 보상을 해줘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을 확장해 놓으면 이 구간에서 현재 8m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큰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지역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 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청색 선이 신설 개설도로가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보문동 쪽으로 연결되거나 고대 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신설동로터리로 다시 우회전하는 코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길이가 100m 되는데 과연 그것이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재 아까 吳錦南委員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3m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의 통행문제, 소방도로 진입문제도 연관성이 있고 이 지역으로 차가 들어가면 어차피 우회전해서 신설동으로 나와야 되지만 통과노선의 성격과 이 지역주민의 소방도로 확보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간이 현 위치까지이고 이쪽이 성북입니다. 성북구간이 현황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10m로 확보하고 현재 8m만 돼도 전체 노선으로 봐서는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현재 6m 입구로 설계가 돼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초로 도시계획과에서 공람공고할 때 6m 도로로 확정된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安載弘委員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8m나 좀 더 넓게 도로폭을 잡아보도록 하시고 도로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6m로 확장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보상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떻까 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시기적으로 작년도 사업비와 금년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安委員님 말씀대로 오늘 결정해주시면 도시계획과와 8m 확장 문제는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2차 협의를 본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게 하시죠. 8m로 선약을 해 놓고 6m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8m쪽으로 하고 6m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중에라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더 확장하는, 제가 볼 때도 불과 2,3년 안에 6m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역 내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6m이고 어떤 지역은 4m도 되고 실제로 4m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면 제가 먼저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아파트 72세대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의 진입로가 4m폭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폭이 좁아서 중기가 들어가서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중기가 들어갈 틈조차 없어서 타인의 담장을 헐고 중기가 들어간 다음에 중기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원상 복구해주는 그러한 행태가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인근 도로의 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과 짧은 시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악지구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추구했던 시나 종로구가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장기 비전적인 장기 미래적인 관점이 없이 대중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는 야단을 맞기에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왕이면 구의 예산을 들어서 하는 일이라면 좀더 인근 도로의 폭이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해나가자는 뜻이 저의 질문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8m 도로 예정선을 잡고 6m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한 대책으

로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잠깐만요, 委員長님!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토목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본 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질문으로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의원들 예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행정관리국장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의원 예우라는 것이 의원을 만나서 인사를 잘 하고 점심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토목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들께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의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공사를 시행하려다가 또는 월동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금년초에 와서 그것이 발주가 되면서 공사가 재개되고 착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검3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검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진정으로 의원 예우에 신경을 쓴다면 건설교통국이나 또는 기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국·과장께서 그 공사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의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검3교 공사는 최초의 예산은 얼마였고 낙찰가는 얼마였고 시공 낙찰회사는 어디고 감독관은 누구고 공사기간

은 얼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준다면 정말 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번만 읽으면 알게 된다면 지역의 주민들이 “저 공사가 무슨 공사야”하고 물었을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면 의원들께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주민들께 알려줌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심,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청 발주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원들께 사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安載弘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도도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발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는 공사에 대해서 금년에 아마 공문 ‘일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항을 아마 의원님들한테 공문서 상으로 일차 띄웠습니다. 작년에 일단 발주를 하고 공사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공문을 드린 바도 있고 금년에 다시 착공하면서 이 공사는 저희들이 언제 언제인지 공사 내용과 언제 착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차 공문을 회시로 알려드렸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독관하고 제가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독관이 가서 현장에 가서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장비를 대고 공사를 어느 공사부터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차적으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평창동 건은 발주를 아직

○安載弘委員 그러면 李宗哲 課長 답변에 의하면 적어도 의원님들 중에서 나만 유독 그러한 정보를 못받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한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金福同 李 課長님! 꼭 좀 安載弘 幹事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철저하게 2번, 3번 연락해서 해주십시오.

○安載弘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말이죠,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작년 12월에 세검정초등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어떤 제가 얘기를 듣고 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을 불렀어요. 도대체 공사가 시행 안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 해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줄 알았는데 어떤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공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불편이 예상되니 안내해주시고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연락주십시오 하는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참, 이것은 잘한다.李宗哲 課長님의 아이디어인지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세검3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역시 세검지역이기 때문에 개천이라는 것은 원류로부터 상류로부터 하류로 이어지는 그러한 코스기 때문에 관심이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쪽에 나오다 보니까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李宗哲 課長한테 묻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잘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가스 굴착하고 관련된 도시가스는 토목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사라도 만약에李 課長 입장에서 이것은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알려줘도 된다고. 낙찰금액이라든가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것은 빼겠습니까하고 판단하면 빼라는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도 해주셨고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도 구청 공사와 플러스해서 유관기관 굴착문제 기타 다른 기관이 하는 공사까지 관내 의원님과 동에 필히 설명을 드리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수십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되는 지역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부터 공사장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주민 홍보도 병행해서 특히 의원님들께 관내에서 일어나는 작은 공사까지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설명이라는 것이 의원을 현장이나 공사지역에 의원들을 초청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굴착하면 그 구간은 어디이고 공사회사는 어디고 기간은 언제라는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사도 똑같이 해주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뜻 위원님께서서는 정기적으로 통·반장들하고 미팅도 하고 관내를 순찰하시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거를 달라는 얘깁니다. 의원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이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한 거예요.

○委員長 金福同 局長님! 委員長으로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사업 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

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吳弼根 洪承台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朴鍾植
李炯述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財務課長 趙秀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土木課長 李宗哲